

정부가 워라밸 지수를 도입하여 PQ·ESG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

< 보도 내용 (대한경제 1.24) >

◆ “젊은 건설기술인 유인” 연내 ‘워라밸 지수’ 개발

- 젊은층 유입을 ‘워라밸’이 중요하다고 보고, 관련지수를 개발해 공공·민간 기관에 적용을 유도
- 민간 건설·설계·감리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PQ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)·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평가 시 가점

□ 기사에 언급된 ‘젊은 건설기술인 유인을 위해 워라밸지수를 도입하고 PQ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),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’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및 생산활동 변화로 건설기술인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, 중장기 수급전망 분석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*를 하고 있으며,

*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, 건설산업연구원('23. 6~'24. 4)

- 건설 기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, 워라밸 지수개발 및 PQ, ESG 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	책임자	과장	김명준 (044-201-3398)
	기술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장미선 (044-201-3555)